

BPA, 금호P&B화학 때문에 Shortage

2003년 노사협상 지연 결국 생산차질 ... 원재료 상승 200달러 인상

금호P&B화학의 주력 생산제품인 BPA(Bisphenol-A)가 계속된 노사문제로 인한 Cumene 가동중지와 2003년 정기보수 연기로 인해 3-6월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호P&B화학은 2003년 여수공장 노조가 강성으로 분류되는 민주노총 소속으로 옮겨가 금호그룹 전체가 11월경 가을 노사협상을 마무리했으나 금호P&B화학은 협상이 지연됐고 2004년 1월 중순에야 협상이 완료됐다.

특히, 금호P&B화학은 2003년 계속되는 노사갈등으로 촉매교체를 위한 정기보수에 차질을 빚어 크고 작은 플랜트 트러블을 일으켰다.

금호P&B화학은 1월 협상 만료시점까지 BPA 플랜트 가동을 중지했으며, 설날 이후 No.1 플랜트(3만5000톤) 가동 재개시점에서 동파로 인한 트러블과 2월에는 2003년 증설된 No.2 플랜트(10만톤)가 2003년 촉매교체를 하지 않아 3일간 가동이 정지됨에 따라 1-2월 BPA 생산에 큰 차질을 빚었다.

금호P&B화학은 BPA 생산에 차질을 빚음에 따라 2월 Epoxy 공장의 가동을 중지하기도 했는데, 금호P&B화학 관계자는 “계속되는 생산차질 때문에 국내 수요기업인 PC, Epoxy 생산기업에 BPA를 분배하고 있고 계속되는 트러블에 3월10일부터 20일간 정기보수까지 겹쳐 6월까지 BPA 공급이 Short Balance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BPA는 최근 미국의 Sunoco의 트러블과 일본의 Mitsui Chemicals의 정기보수까지 겹쳐 국제가격도 폭등함으로써 수입을 통해 공급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금호P&B화학은 “수요기업에게 안정적으로 BPA를 공급하기 위해 1-2월 BPA를 일부 구매해 공급하기도 했으나 최근 원재료인 Benzene 및 Propylene 가격이 폭등했고, 일부기업의 트러블까지 겹쳐 세계적으로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BPA 원재료인 Cumene도 최근 오퍼가격이 상승했는데, 무역상들은 “일본의 Cumene 및 Phenol, Acetone 수요증가에 따른 오퍼가격 상승으로 국내에 공급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BPA의 원재료인 Acetone 및 Phenol 가격은 내수시장에서 Short Balance 상태로 Dealer들도 물건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BPA의 원재료는 Phenol, Acetone으로 금호P&B화학도 BPA 증설 이후 부족한 Phenol 및 Acetone을 수입하고 있으며, 국내에 공급하는 Acetone도 금호P&B화학이 수입해 대리점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Phenol과 Acetone 가격폭등은 원재료인 프로필렌(Propylene)과 벤젠(Benzene) 가격상승에 따른 것으로 특히, 2004년 프로필렌 가격은 12월에 비해 총 110달러 폭등했다.

BPA는 2004년 원재료 가격폭등과 원단위에 따른 가격인상폭이 톤당 200달러로 파악되며, 운송비 및 기타 부대비용의 증가폭을 감안했을 때 가격인상폭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제가격 폭등과 금호P&B화학의 생산차질로 PC 및 Epoxy 생산기업들이 BPA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여 2004년 상반기 생산량 조절에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BPA는 국내에서 PC용으로 63%, Epoxy 35%, 기타 2% 소비되며, 세계 수요비중은 PC 67%, Epoxy 30%, 기타 3%를 나타내고 있다. <김동민 조사기자>

<Chemical Journal 2004/03/10>